

강용주의 ‘인권 광장’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세계인권선언

12월 10일,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48년 유엔 총회는 홀로코스트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들이 벌어진 2차 세계 대전을 반성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그 결과로 태어났지요.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야만적 행위를 야기’했다는 성찰과 ‘언론과 종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길 바라면서요.

세계인권선언과 관련한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였지요. 유엔은 ‘Know Your Rights 2008’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세계적으로 축하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 같은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특별 홍보 대사’를 위촉했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를 그린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 패션 디자이너 양드레 김, 그리고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래 유명 인사나 연예인이 맡아 온 홍보 대사

에 ‘비전향 장기수’인 저를 위촉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60주년을 맞아, 우선 우리 사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을 홍보 대사로 위촉하자는 여러 분들의 추천 끝에 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전향 장기수로 14년을 복역하고 석방된 후에도 보안관찰법과 싸우고 있는 제 삶이 우리나라의 인권의 바닥을 다지고 그 지평을 넓혀 왔다고 평가한 거지요.

하지만 홍보대사 위촉식 일주일 전에 식이 갑자기 연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공공연히 색깔 덧씌우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양드레 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좌파 조직이어서 주변에서 반대한다”며 인권 홍보대사를 안 하겠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연기된 위촉식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위촉패가 우편으로 배달됐습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귀하를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인권 홍보대사로 모십니다. 귀하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홍보 대사로 그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인권위를 알리고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게 그 역할일 텐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이후 단 한 번도 저를 앞세우지 않더군요.

세계선언을 60만 명이 함께 읽자는 캠페인을 하면서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니다. “제5조 :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0조 :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1조 :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2조 : 모든 인간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3조 :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인 사실은 선언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말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제20조)가 있어도 차별이 가로막고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현실.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제3조)가 있지만 시민이 불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도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는 공권력.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제19조)가 있다는 조항을 비롯듯 ‘세월 오월’ 같은 예술작품을 못 걸게 하는 인권도시.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제2조)이 있는데도 성적 소수자에 대해 “인권도시 광주에서 동성애가 웬 말이나?”며 인문학 강좌마저 방해하는 행정력…

혼돈과 어둠 속이더라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제1조)는 그 약속만은 새벽별처럼 더욱 뚜렷해집니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세계인권선언을 가슴에 새기며 또 한 발짝 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두박두박.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종교칼럼



일 담
강진 백련사 주지

오랜 세월 출가해서 수행자로 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곁들여진 습관과 고정관념은 나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속에서 부대끼는 중생들은 누구나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의 관습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무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체면이나 남의 눈치 때문에 좋은 마음을 일으켜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모른 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또한 18년 동안 수행자로 산다고 하지만 뒤늦게 후

부처님이 계셨더라면...

화하는 결정을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스스로를 되새겨 봅니다.

며칠 전 동국대의 한 학생이 50일 동안 단식을 해서 응급실로 실려 간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학생의 단식 47일째 되는 날 제가 해외포교지를 만들 때 발행인으로 모셨던 스님이 동국대 이사를 사퇴하고 생명을 살리라며 그 학생의 텐트 옆에 조그마한 텐트를 치고 단식을 하셨습니다.

선한 눈매에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부끄러움이 담긴 목소리에 저도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불씨가 돼서 동국대 이사들이 전부 사퇴하고 팽팽하게 맞섰던 갈등을 풀 수 있는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누구나의 가슴 속에 흉터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누구는 학생이 과격하다고 하고 누구는 정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

엇이 옳다고 하기 이전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입장에서 보면 학생을 지지했던 측이나 반대했던 측 모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단식을 하셨던 그 스님은 부처님이시라면 분명 생명부터 살리고 보자 하셨을 거라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단식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단식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는 주체들의 노력과 결단 만이 아니라 대립하는 양측 모두의 노력과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다행히 그 호소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져 사태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가깝스로 막을 수는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서로의 입장을 좁히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골 산중에 있어도 세상의 소리는 막을 수 없는지 자주 흥흥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물대포에 옛날 사라졌던 사복제 조인 백골단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까지 세상의 갈등은 예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집회에 성직자들이 평화를 지켜야 한다며 인간 따를 두르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 조계사에 피신한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서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품안에 날아온 비둘기를 위해 자신의 살점을 베어 마귀에게 줍니다. 결국엔 자신의 몸을 다 던져서 비둘기 한 목숨을 살립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이나 비둘기나 누구의 생명이든 똑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종교의 폭속에 들어온 이는 누구나 마땅히 보호 받을만 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깨트린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경전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부처님께 소소한 일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묻는 일화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생존하셨더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 고



양 성 관
동강대학교 교수

지난 주말에 아내와 함께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여덟 빛깔 무지개’ 어린이 뮤지컬을 관람하였다. 이번 뮤지컬은 광주의 ‘아시아 문화도시 선정’과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하고, 아시아의 문화를 우리 광주에서 꽃 피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광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뮤지컬로 올린 것이다.

어린이들이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별반 기대를 하지 않고 갔었는데, 뮤지컬이 끝나는 순간 필자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뜨지 못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기에 그 감동을 이 지면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다.

‘여덟 빛깔 무지개’ 창작뮤지컬을 보고...

‘창작’뮤지컬이 결코 쉽지는 않다.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부담을 안고 있는 어린이들이 음악과 율동을 모두 외워 1시간 이상의 뮤지컬로 소화해 낸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노력과 능력뿐만 아니라 제작진과 어린이들의 가족, 학교 모두의 배려와 지원이 충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뮤지컬은 결코 기존 뮤지컬을 흉내 내지 않고 창작한 뮤지컬을 어린이들이 합창과 독창, 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랩들과 현대 어울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우선 칭찬하고 싶은 것은 내용이 소외된 다문화가정의 아픔을 어린이들 스스로 사랑으로 승화시킨 점이다. 베트남 엄마와 한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혼혈아이가 전학을 와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갈등과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된다. 그러나 나중에 어린이들끼리 서로 감싸 안으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새로운 삶으로 승화된다. 마지막 부분에 ‘지금 여기 우리가 모두 함께 그러가는 파란 하늘 비취우는 싱그러운 신호, 마음

속에 활짝 피는 우리들의 푸른 꿈’등의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했다.

두 번째로 칭찬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량의 노래와 춤을 너무나 멋지게 잘 소화해낸 광주소년소녀합창단의 능력이다. 어린이들의 합창과 독창, 랩 등이 오랜 연습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으며, 특히 후반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민요를 중심으로 그들의 풍습을 담은 뮤지컬은 정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 놀이 중 ‘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흥에 겨운 모습을 담은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제작진과 어린이들이 잘 소화시킨 멋진 작품이었다.

세 번째로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제작진의 참신한 창작성이다. 무대의 막이 열리면 세계음악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한 비행기가 광주 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이 보이며 작록을 알리는 스토어디스의 안내방송이 흐른다. 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가 광주에 오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광주에서는 무등산초

등학교 학생들이 무대에 서기 위해 합창 부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뮤지컬이 시작된다. 마지막에는 비행기에서 내린 세계 어린이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음악축제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민속민요를 부르고, 무등산초등학교 합창부 어린이들은 여덟 빛깔 무지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역시 ‘여향(藝響) 광주’라는 자부심이 든다. 공연이 끝나고 예술회관 로비에서 제작진과 출연 학생들 모두가 부동계안고 서로의 수고를 아낌없이 격려해주며 안아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하다. 참으로 아름답고 뿌듯한 모습을 보았다. 이번 ‘여덟 빛깔 무지개’는 한번 공연으로는 너무 아깝다. 내용과 구성 면에서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대한민국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를 더 많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앙코르공연이 이어졌으면 하는 욕심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社 說

“함께 나눠요” 기부로 만드는 훈훈한 세상

최근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페이스북 자본의 99%(52조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딸의 출생을 기뻐하고, 딸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통 큰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놀라우면서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우리의 ‘기부 문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기부를 떠올리면 대부분 호나 억만장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놓을 것을 약속하고, 대대적으로 알려야 제대로 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 같은 편견을 깨뜨리는 미담도 많다.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된 승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다. 부부는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생애 주기별 기부 프로그램 ‘나눔의 첫걸음’에 승우의 이름으로 난치병 어린이를 도울 수 있고

록 기부를 했다. 승우는 앞으로도 생일·취업·결혼·회갑 등 자신의 의미 있는 날에 이웃 사랑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나눔의 첫걸음’에는 광주교도소 재소자들도 동참했다. 지난 9월에는 60대가 어머니의 조의금 일부를 쾌척했다. 지난해 딸의 돌잔치 대신 100만 원을 내놓았던 한 엄마는 올해 딸의 생일에 같은 액수를 다시 기탁하기도 했다. 비록 적더라도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결코 저커버그에 못지않은 참된 기부라 하겠다.

기부는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거창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주는 도움이 훨씬 소중하다.

세밀이 다가오고 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행을 찾아 실천하는 일, 도움 받는 이와 베푸는 사람 모두 훈훈한 연말을 보내는 방법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수직상승한 까닭은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청렴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 현장은 어느 공공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번 시교육청의 ‘선전’은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엿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대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는 10위에 머물렀던 지난해에 비해 7단계나 상승한 것이어서 교육계 안팎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평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외부 청렴도 7위 ▲내부청렴도 2위 ▲정책고객평가 8위 등으로 모두 10위 안에 들어 종합순위가 3위까지 뛰었다. 내부청

렴도는 1위였지만 외부청렴도 16위에 정책고객평가 14위에 머물렀던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나아진 결과다.

시교육청이 1년 만에 이처럼 일취월장해 청렴의 이미지를 되찾게 되니까지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운동부 운영 관리,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의 청렴도 개선에 올인하는 한편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했으며 현장 밀착형 청렴 정책을 통해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성과를 귀감으로 매년 청렴도에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고질적인 부패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각성과 함께 자정 분위기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요즘 전 세계적으로 테러(terror)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 역시 근대사에서 가슴 아픈 ‘테러의 기억’을 지니고 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경복궁에서 발생한 처참한 살인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명성황후의 거처인 건청궁에 난입한 일본인 자객들은 한 나라의 국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일본의 문필가 츠노다 후사코는 그 날의 이야기가 담긴 ‘민비 암살’이라는 책에서 “나카무라 다테오가 곤녕합(坤寧閣)에 숨어 있던 명성황후를 발견하고 념

어뜨려 처음 칼을 들고, 곧이어 달려온 도오 카츠아키가 두 번째로 칼을 대어 절명시켰다”고 썼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은 일본 후쿠오카 시내 한복판의 ‘쿠시다 신사’에 숨겨진 채 하연 눈을 번득이고 있다. 일본인 테러리스트 도오 카츠아키가 황후를 살해한 칼 ‘히젠도’가 이 신사에 은밀히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잔혹한 테러에 사용된 무기를 소중히 간직해 온 일본은 지난 2012년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

힌 나무막대를 세우는 ‘말뚝 테러’를 자행했다. 이어 지난 5월엔 또다시 ‘다리 없는 소녀상’을 경기도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 보내 2차 테러를 일으켰다. 3년 전 말뚝 테러의 범인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보낸 이 소포에는 ‘제5종 보급품’(군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글과 함께 ‘얼굴이 일그러지고 무릎 아래가 없는’ 소녀상 모형이 들어 있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최근 발생한 폭발 사고가 가혹이나 경색된 한일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적한 화장실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어쨌든 ‘일본 입장에선’ 테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한국인이 지목되고 있어서다.

황후 살해범들은 히로시마 원폭소에 수감됐다가 4개월여가 지난 뒤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석방됐다. 말뚝 테러범이 처벌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고 있다. 혹시라도 야스쿠니 신사 폭발 테러범이 확인된다면, 일본이 어떻게 처리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월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